

FIFA, 19일 새 랭킹시스템 '엘로 레이팅' 도입...한국 57위서 26위로 꺾춤
(예상)

태극전사, EPL 대문 활짝 열렸다



세계축구의 서열로 통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선정방식이 7월부터 달라진다. '엘로 레이팅 시스템'에 기반을 둔 한국 순위는 부쩍 올라갈 전망이다. 순위가 올라가면 태극전사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8일(한국시간) 2018러시아월드컵 독일전에서 2-0 승리를 거둔 뒤 기뻐하고 있는 축구대표팀 선수들. 카렌(러시아) | AP뉴시스

강팀 이겨야 포인트 급등...독일전 승리 큰 덕
취업비자 발급 수월...유럽진출 급물살 탈수

산정 방식이 확 바뀐 새로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7월 첫 발표를 앞두고 있다.

FIFA는 지난 6월 "2년 간 랭킹 연구를 했다. 모든 대륙연맹과 협의했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물리학자 엘로 아르파드가 합리적인 실력 평가를 위해 고안한 '엘로 레이팅 시스템(Elo rating system)'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상대적 우열 관계에서 실력 높은 상대를 이기면 많은 포인트를 얻고, 실력이 낮은 상대에 패하면 점수가 크게 깎이는 형태다.

1993년 8월부터 발표된 FIFA 남자 랭킹은 전력 이 뒤지는 팀이 월드컵 톱시드에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러시아월드컵에서도 FIFA 랭킹 10위 이내 팀 가운데 8강에 오른 건 3팀(브라질, 벨기에, 프랑스) 뿐이다.

FIFA가 어느 수준까지 '엘로 레이팅' 산출법을 적용할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일단 '엘로 레이팅'만 따지면 10일 현재 한국(1757점)의 랭킹은 26위로, 45위의 일본(1699점)보다 높다. 아시아 1위는 1816점의 이란(20위)이다. 이는 월드컵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2-0으로 완파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전(0-1 패)에서 23점을 잃고, 멕시코전(1-2 패)으로 14점을 빼앗겼지만 80점을 얻은 독일전이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순위가 급등하면 유럽, 특히 잉글랜드 진출을 희망하는 태극전사들에게 대형 호재가 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비 유럽권 선수를 데려올 때 FIFA 랭킹에 따라 워크 퍼밋(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해왔다. 최소 기준 50위권 이내로, 31~50위 국가 선수는 최근 2년 간 A매치를 75% 이상 소화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이적료 1000만 파운드(약 150억원) 이상 받거나 해당 클럽 감독이 직접 영국 노동청에 설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전·현직 태극전사들이 EPL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블랙번에 입단하려던 김보경(29·가시와)이 K리그1 전북 현대로 향하고, 에버턴~왓포드~레스터시티 등 러브 콜을 받은 이재성(26·전북)이 잠시 꿈을 미룬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4월 아스널~리버풀 등의 이적설이 제기된 김민재(22·전북)가 마음을 접은 것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워크퍼밋 규정이 당분간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21~30위권 국가 선수들은 A매치 60% 이상만 채우면 돼 태극전사들의 꿈 실현은 한결 수월해진다. 새 시스템으로 산출되는 7월 FIFA랭킹은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yoshike3@donga.com



전설의 부장이 왔다...새 만화 '힘내요! 달마부장' 오늘부터 연재

▶ 16면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화순배드민턴선수권



◀ 이용대

차세대 이용대를 꿈꾸며!

전남 화순에서 오늘부터 24일까지 열린
전국 초·중·고·대학 선수 1800명 참가

한국배드민턴을 이끌어갈 1800여명의 선수들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30·요넥스)의 고향 전남 화순에 모입니다.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국 초·중·고·대학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11일부터 24일까지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 이용대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008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용대의 고향 화순과 자신의 이름을 건 체육관에서 명승부가 펼쳐집니다.

전국학교대학 배드민턴선수권은 한국배드민턴 유망주들의 산실입니다. 이 대회 우승자들이 국가대표 주축선수로 성장해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2009년부터 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화순군은 이용대의 등장과 함께 배드민턴 유망주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는 '한국배드민턴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순에서 대회를 개최한 이후 수많은 꿈나무들을 발굴했습니다. 김원호(삼성전기)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고 올해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용대는 "제 이름을 건 대회를 제 이름을 딴 체육관에서 매년 치르며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며 기쁩니다"고 말하며 전국의 서툰 꿈나무들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11일부터 17일까지 이용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2018 전국실업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함께 열립니다. 대회기간 초등학교부터 실업팀까지 전국의 배드민턴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서툰 큰 축제가 펼쳐집니다.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24(화)
- 장소 :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이용대체육관
- 주최 : 스포츠동아·동아일보사
- 주관 :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 후원 : 화순군·화순군의회·대한배드민턴협회·전남배드민턴협회·화순군체육회·화순군배드민턴협회
- 종목 : 단체전 및 개인전

▶ 관련기사 10·11면

CJ CHEILJEDANG

하루 1포로
효소에
홍삼까지!CJ CHEILJEDANG 건강의 핵심
H.O.P.E 발효효소액티브 3g홍삼 함량을 3.3배 높여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액티브 Active1 자신있는
효소 함량!

HOPE 발효효소액티브는 효소를 보충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잘 분해되고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1포에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가 각각 4,500(U) 이상씩 들어 있어, 하루 1포로 무약 3/4개, 킬로 약 3개 만큼의 효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HOPE 발효효소액티브로 일상의 건강을 챙기세요!
(7월 76 g / 무 400 g 기준, 자체실험결과)

2 1포에
진세노사이드
5mg 함유

활기찬 일상을 위해 홍삼까지 더한 HOPE 발효효소액티브 1포에 홍삼고유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 Rb1 + Rg3)를 5 mg 담았습니다. 기존보다 홍삼 함량이 3.3배 증가되어 더욱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액티브 하루 1포로 효소와 홍삼의 건강을 함께 누리세요.

3 6가지
건강 곡물의
발효 영양!

6가지 건강곡물(밀, 귀노아, 현미, 귀리, 렌틸콩, 찰보리)을 발효하여, 효소뿐 아니라 발효곡물의 영양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밀·배아·현미·귀노아·현미·귀리·렌틸콩·찰보리

4 믿을 수 있는
CJ제일제당의
기술력

HOPE 발효효소액티브는 CJ제일제당에서 수년 여의 연구를 통해 최적의 발효균주와 발효조건을 찾아냄으로써 탄생된 제품입니다.



CJ제일제당 종합연구소 CJ 발효원리 연구소(연구·개발·생산·판매)

홍삼 함량 UP!
구매 혜택도 UP!

2+2

2세트 구입 시
2세트 더!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액티브
지금 바로 만나 보세요

*본 제품은 약품도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류상담 및 주문

080-722-9988